

청소년의 기본욕구충족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대처의 매개효과 검증

정민선*

아주대학교

김현미

국제사이버대학교

권현용

협성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본욕구충족과 스트레스대처 그리고 인터넷 중독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본욕구충족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대처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청소년 382명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척도, 인터넷중독척도, 스트레스대처양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기본욕구충족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대처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결과, 남자고등학생의 기본욕구충족이 높을수록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가 높고, 인터넷 중독이 낮았으며, 스트레스대처는 기본욕구충족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가 남자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상담에서 갖는 의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 되었다.

* 주요어 : 기본욕구충족, 자기결정성, 스트레스대처, 인터넷중독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정민선, 아주대학교,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학생상담센터,
Tel : 031-213-2193, E-mail : cafemadam2@hanmail.net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한국문화정보진흥원 등 이미 국가차원에서 여러 부처들이 다각도로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어린자녀를 방치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 등 성인들에게까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미성숙한 발달단계에 있어 자극적 흥미를 유발하는 인터넷을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는 전체 청소년의 12.8%인 93만 8000명에 달하며 이 중 2.6%인 18만 7000명은 치료가 시급한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메디컬투데이, 2010). 인터넷 중독은 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위험 수위에 도달하기 전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인터넷 중독 관련 요인을 파악한 기존 연구들은 성별과 인구통계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가족 관련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인터넷 중독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안정남, 김동규 2000, 김혜원 2001, 이계원 2001, 정여주 2005). 조영란(2003)의 연구에서는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에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외 연구들에서도 의존적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이 남성 71%, 여성 29%로 남성이 더 높고, 병리적 인터넷사용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Griffiths(1999)는 인터넷 중독과 연령의 관계에 대해 10대이면서 남성이 더 많이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였다(한기홍, 2008:재인용).

두 번째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응력이 떨어지고,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해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심각한 정서적 문제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인터넷 중독에 더 쉽게 노출된다(한규석, 1999, Young & Rogers 1998). 전영자와 서문영(2005)의 연구에서도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및 가명성으로 인해 자신을 좀 더 이상적으로 보여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시간을 투자하면 등급이 올라가고 아이টে를 얻게 되는 등 구체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자기 통제력과 함께 자기효능감은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송원영, 1998), 삶의 만족도가 낮고 친밀성이 낮으며, 강한 유대감, 소속감이 부족할수록 중독위험이 높다(류진아, 2003). 또한 스트레스가 높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중독위험이 높고, 인터넷중독자는 가족과의 소통이 감소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고 고독감과 우울감이 증가한다(한기홍, 2008).

세 번째 가족관련 요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부정적일수록, 의사소통이 일방적일수록 인터넷에 중독되며(김연화, 2005), 학업성취가 낮고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쉽다(이명화, 2003).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들을 보면 인터넷 중독은 남자 청소년, 특히 자기조절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낮고, 사회적 지지나 소속감이 없는 그리고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경험하면서 학교에 부적응하는 청소년의 경우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새롭게 개념화한 조영미, 김동민, 송경수, 유지현(2009)의 연구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을 추구하려는 “접근”의 개념과 불만족스러운 것을 “회피”하는 두 축으로 설명하였는데, 추구하는 만족은 유능감, 사회적 인정, 유대감, 재미, 자기정체감 등이었고, 회피의 대상은 삶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권태로움, 소외감 등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에 대해 청소년들은 문제나 병리적 원인 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접근한다는 일종의 생존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가 채워질 때 생존할 수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기본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가 채워질 때 스스로 내재적 동기가 활성화되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결정성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곽소영, 손은정,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사용을 통해 추구하는 만족감, 유능감이나 사회적 지지, 유대감, 자기통제감 등을 심리적인 기본욕구로 볼 수 있다.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되면 스스로 자기행동을 조절하고 관리하여 자율적으로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은 이러한 기본 심리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인터넷사용에 더욱 몰입하게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현실에서 좌절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인터넷에 몰입한다고 밝혔다(Alex & Jefferey, 2001; Griffiths, 1999; Suler, 1996).

심리 욕구 충족 여부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심리적 욕구충족이 충분하고 자기결정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며 자신의 자발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외부 압력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심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곽소영, 손은정, 2008).

인터넷 중독

중독은 중단하면 심한 감정적, 정신적, 심리적 반응을 초래할 정도로 어떤 물질이나 습관, 행위에서의 통제가 불가능한 의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알코올, 마약, 도박, 섹스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중독의 세 가지 특징은 첫째, 어떤 방법으로든 중독물질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과도한 욕구이며, 둘째, 그 양을 증가시키려는 경향, 셋째, 그 중독물질이나 행동이 주는 효과에 심리적 및 신체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이우연, 2004:재인용). 중독의 의학적 시각에서는 중독의 원인제공자 즉, 약물이나 행동 등과의 접촉을 끊는 것

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의 경우, 원인제공자가 되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은 현대의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필수적인 도구로 이에 대한 접촉을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회흐름에 도태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의 개념을 보는 시각은 의학적 개념보다는 “사용 조절”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어떤 문제나 갈등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피하기 위한 방어적, 적응적 기제로 보고, 개인이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 자기통제감의 결여, 의지력의 결여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이우연, 2004). Brenner(1997)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의 사람들은 주로 남성이며, 절반이상이 내성을 경험하고 있고, 시간관리에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러한 시간관리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는 사람은 주로 남학생이었으며, 정서적 지지를 받기 위해 인터넷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은 만나거나 게임, 도박, 섹스 등에 심취해 있었다(한기홍, 2008).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은 충동성, 공격성, 우울, 자기도피성향, 자기통제력, 외로움, 대리만족, 자아효능감등과 관련이 있었고, 가족 관련요인은 부부관계, 양육행동, 부모통제, 부모 감독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적 요인은 정서적 지지, 교사 지지, 친구 영향력, 학교 만족도, 학교 부적응 등으로 나타났다(김주환, 이윤미, 김민규, 김은주, 2006). 즉, 인터넷 중독도 마약이나 도박이 주는 쾌락으로 인해 중독이 되는 것처럼, 인터넷이 제공하는 강화가 개인들로 하여금 욕구의 충족을 일으킴으로써 중독에 이르도록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터넷사용으로 인해 현실에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터넷에 중독된다는 것이다(이우연, 2004). Suler(1996)는 매슬로우(Maslow)의 5단계 욕구위계이론을 응용하여 인터넷의 익명

성, 네트워크 이라는 요소가 인간의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연구를 한 바 있다(한기홍, 2008).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인터넷 중독은 인간의 욕구충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욕구들을 인터넷공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고 때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가정하고 회피해오던 행동들을 대리만족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리욕구충족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욕구불만 또는 욕구좌절을 경험할수록 인터넷 중독 행동이 강화되고, 욕구충족이 될수록 인터넷 중독이 감소될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자기결정성이론

Ryan과 Deci(2000)는 인간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보다 자기결정성이 높아지고 심리적 어려움을 덜 느끼며, 행복감을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적 기능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조절되며 그 조절의 수준에 따라 내재동기와 외재동기로 유형화할 수 있다. 행동의 원인이 자기결정적일수록 내재적인 동기가 유발된다. 또한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적 맥락에서 선천적으로 주어진 내재적 동기가 자연스럽게 발현되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결정성이 극대화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며, 이들이 만족될 때에 내재적 동기가 높아지고 자기결정성이 극대화된다. 자율성은 어떤 일을 할 때 선택이나 의사결정시 스스로 목표를 세우기를 원하는 욕구이며, 유능성은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사용할 기회를 경험할 때 충족되는 욕구이다. 관계성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타인이 자신을 배려한다고 느낄 때, 그리고 타인과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 속해있을 때 충족되는 욕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심리욕구 충족이 인터넷몰입이나 중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최근 국내에서 활발히 검증되고 있다. 김주환 외(2006)의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생활만족도를 매개로 인터넷중독 성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임규성(2012)의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충족이 인터넷 과몰입에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다. 또한 이지혜(2012)의 연구에서는 현실에서 기본심리욕구충족이 낮을수록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준호(2012)의 연구에서는 중고교 남학생의 개인변인(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외로움)과 인터넷중독과의 관계에서 기본욕구충족이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기본 심리 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가 충족 되면 스트레스 사건에 압박을 덜 느끼고 갈등을 위협보다는 도전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이와 반대로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신의 목적과 선호에 대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인터넷 중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비중독 집단간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차이분석을 한 결과 중독자들은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방어하고자 하는 소극적 대처 성향인 정서 완화적 대처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우연, 2004:재인용). 또한 인터넷 중독자의 경우 비중독자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하며, 스트레스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욕구가 크고 비효율적 대처방식이 유의미하게 인터넷의 병리적 사용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정혜, 2005; 서승연, 2007; 장미경외 2004).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해 감정중심적, 회피중심적 대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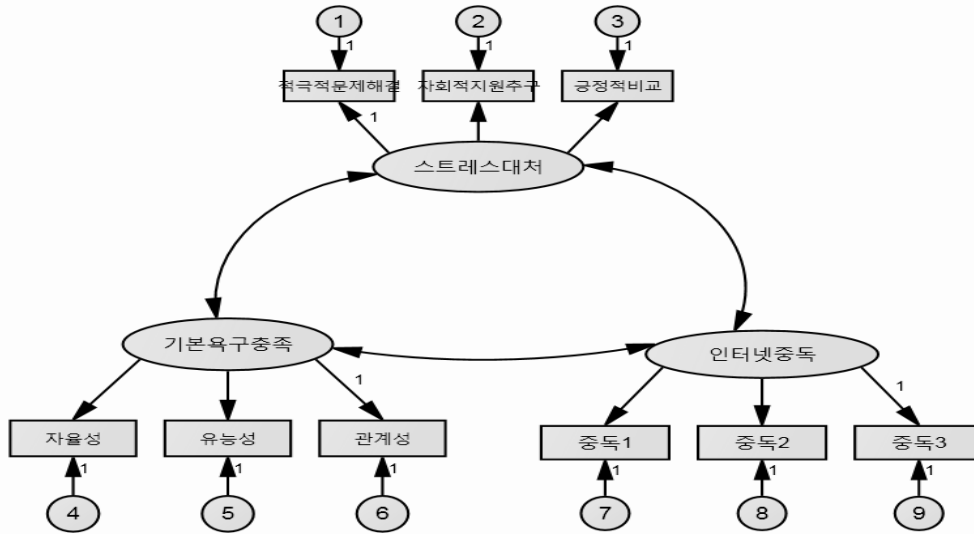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을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되면서 인터넷 중독에 이르게 된다(권영구, 2000). 그러나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가 충족되면 자기결정성이 높아지고, 스트레스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중독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려고 한다.

연구의 가설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본욕구충족과 인터넷중독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기본욕구충족과 인터넷중독과 상관이 있음을 보여 이 둘의 관계는 잠재적 매개변인에 의하여 매개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둘째,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기본욕구충족은 스트레스 대처를 보다 탄력 있고 적응적이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셋째, 인터넷중독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대처에 소극적이고 회피적이라는 선행연구(이우연, 2004)를 토대로 인터넷 중독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관계가 유의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방법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자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1년 9월~10월중 경기도 소재 5개 고등학교 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확인하여 교사의 진행 아래 설문을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은 남자 고등학생은 1학년이 216명, 2학년이 166명으로 총 382명이었다.

연구절차

인터넷중독 척도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의 정도를 가리기 위해 Young의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인터넷중독 검사(Inventory Addiction Test)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윤재희(1998)가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text{chronbach's alpha} = .79$, 이우연(2004)의 연구에서는 $\text{chronbach's alpha} = .96$ 으로 검증되었다. 이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문항의 내용은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 행동상의 문제, 및 정서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20점에서 100점까지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text{chronbach's alpha} = .90$ 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양식 척도

스트레스 대처양식 척도는 김교현, 전경구(1993)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스트레스대처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처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적인 것과 “회피”적인 것으로 구분되며, 접근적 대처는 스트레스 유발 자극을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의미하며, Ryan과 Deci(2000)는 자기결정성이론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때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대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근”적인 대처유형에 관한 척도만 사용하였다. 접근적 대처의 하위요인은 적극적인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원추구, 긍정적인 비교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적극적인 문제해결은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시도를 하고 인지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시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지원추구는 자신의 안녕이나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며, 긍정적인 비교는 인지적 측면에서 자신보다 못

한 상태의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고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적극적 문제해결 4문항, 사회적 지원추구 4문항, 긍정적 비교 4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손영미(2002)의 연구에서는 접근적 대처양식의 $\text{chronbach's alpha} = .75$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text{chronbach's alpha} = .82$ 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척도

Ryan과 Deci(2002)가 개발한 기본심리 욕구척도의 문항을 근거로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요인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각 6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6점 리커트 척도이며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는 자율성이 .70, 유능성이 .75, 관계성이 .7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희철 외(2009)의 연구에서는 자율성이 .77, 유능성이 .80, 관계성이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가 자율성이 .75, 유능성이 .73, 관계성이 .81로 나타났다.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기술통계는 SPSS 15를 이용하여 구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AMOS 7.0을 이용했다. Hair, Black, Babin, Anderson과 Tarham(2006)은 사례수가 250명 이상이고, 측정변인의 수가 12개에서 30개 사이일 때 CFI와 SRMR을 조합하여 보고할 경우 CFI가 .92를 넘고 SRMR이 .08미만이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CFI지수는 자유도가 큰 모형에서 작은 모형을 이행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고, SRMR은 표집의 변량 공변량 행렬과 추정된 전집의 변량 공변량 행렬사이의 잔차를 평균한 것으로 모형이 적합하다면 표집의 변량공변량과 전집의 변량공변량의 차이가 작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CFI와 SRMR은 비교적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적합도 지표를 사용하는 것을 다수의 학자들이 제안하고 있어(김계수, 2001; 홍세희, 2000; Hair et al., 2006),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근거를 적용하여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결 과

척도 점수들의 단순 상관

표 1에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의 척도 점수의 수준에서 구한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변인들의 상관을 보면, 기본욕구충족은 접근적 스트레스대처양식과 정적 상관을, 인터넷중독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접근적 스트레스대처양식과 인터넷중독 또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욕구충족이 높을수록 인터넷중독 정도가 낮았고, 둘째, 기본욕구충족이 높으면 접근적 스트레스 대처 또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접근적 스트레스대처가 높으면 인터넷중독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기본욕구충족과 인터넷중독 간의 관계에서 접근적 스트레스대처의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었다.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구성과 측정변인의 상관, 왜도, 첨도

측정변인은 각 구인들을 측정하는 개개 문항들을 합하여 묶거나 척도의 하위요인을 점수를 사용하여 구성되었다. 각 척도의 개개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면 추정해야 할 미지수의 개수가 지나치게 증가되어 많은 사례수를 요구하고, 최대우도추정 방법의 전제 조건인 다변량 정상성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위척도가 있을 때는 하위척도를 측정변인으로 구성하고, 하위척도가 없을 때는 개별 문항점수들을 합한 총합점수(item parcels)를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따라서 기본 욕구 충족과 스트레스 대처는 하위척도를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고, 인터넷중독은 Russell 등(1998)의 제안에 따라 추출 요인의 수를 1개로 지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고, 문항들의 요인계수에 기초하여 문항들을 그룹화하고, 그룹 총점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각 측정변인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첨도와 왜도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변인들간의 단순 상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중독1	중독2	중독3	문제해결	지지추구	긍정비교
자율성									
유능성	.54**								
관계성	.62**	.48**							
중독1	-.14**	-.21**	-.17**						
중독2	-.18**	-.19**	-.21**	.79**					
중독3	-.14**	-.16**	-.16**	.74**	.78**				
문제해결	.36**	.28**	.27**	-.02	-.05	-.08			
지지추구	.15**	.08	.33**	-.16**	-.13**	-.15**	.28**		
긍정비교	.36**	.19**	.34**	-.07	-.14**	-.14**	.46**	.49**	
평균	23.17	23.90	26.04	14.34	10.87	15.35	12.15	10.34	10.57
표준편차	4.94	4.98	4.68	5.08	4.01	5.24	3.22	3.95	3.22
왜도	-.100	-.409	-.643	.917	1.35	.657	.142	.331	.189
첨도	.636	.158	1.14	1.05	2.81	.435	-.021	-.587	-.144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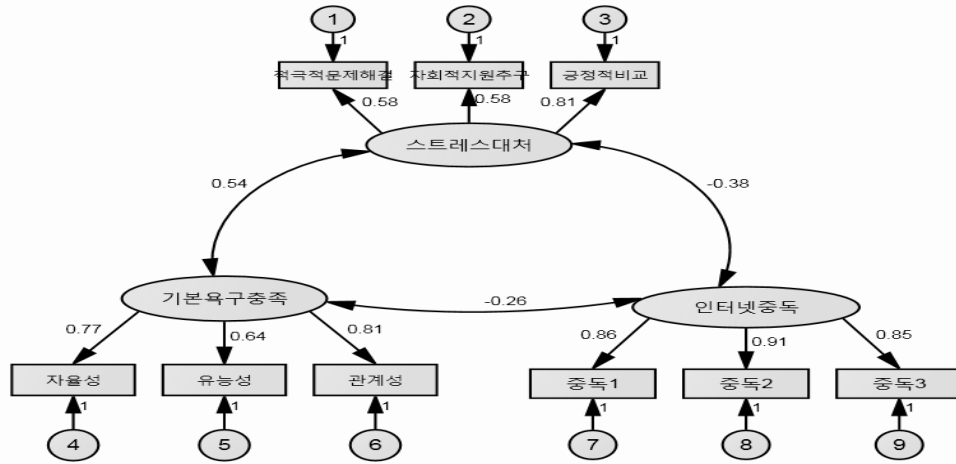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주. 경로계수가 1로 고정된 변인: 자율성, 적극적문제해결, 중독1을 제외한 모든 다른 경로: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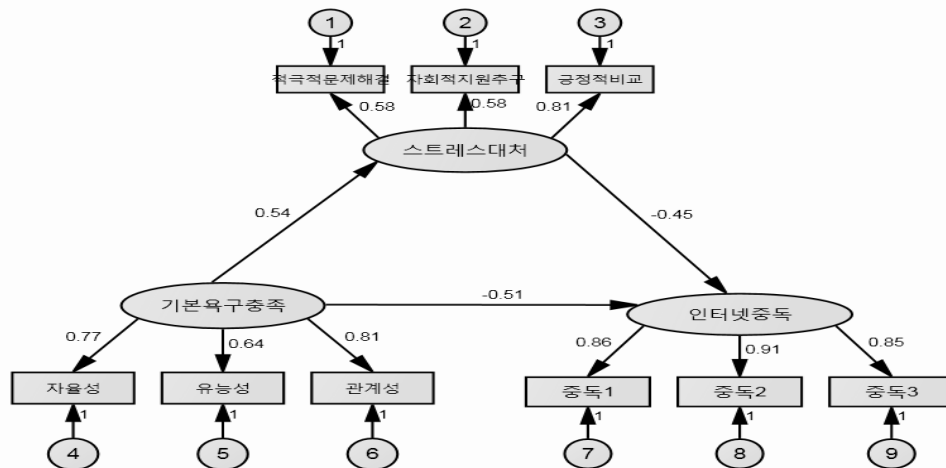


그림 3. 부분매개모형

주. 경로계수가 1로 고정된 변인: 자율성, 적극적문제해결, 중독1 을 제외한 모든 다른 경로: $p < .001$.

를 살펴보았으며, 구조모형 검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ppler & Heppler, 2008).

측정모형

측정모형(그림 2)의 $\chi^2(24, N = 382) = 75.78, p < .001, CFI = .96, SRMR = .042$ 이었다. 이 결과는 Hair 등(2006)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잠재변인들에 대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계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단, 1로 고정된 요인계수는 제외).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도 모두 유의하였다($r = .54, p < .001; r = -.26, p < .001; r = -.38, p < .001$).

구조모형

구조모형은 최대우도추정 방법으로 검증되었다. 부분 매개모형(모형 1)의 $\chi^2(24, N = 382) = 75.78, 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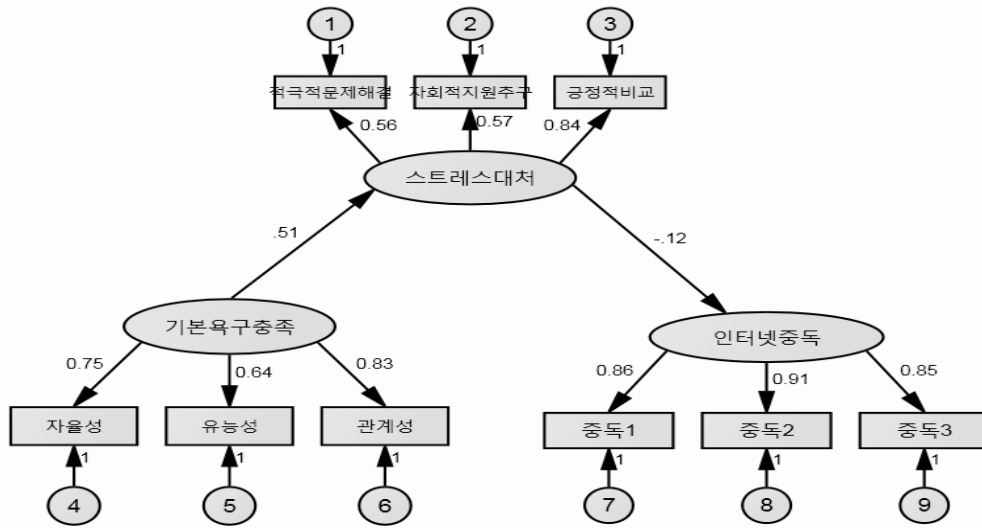


그림 4. 완전매개모형

주. 경로계수가 1로 고정된 변인: 자율성, 적극적문제해결, 중독1 을 제외한 모든 다른 경로: $p < .05$.

표 2. 모형비교

모형	χ^2	df	모형비교	$\Delta \chi^2(df)$	CFI	TLI	RMSEA	SRMR
1. 모형1(부분매개)	75.78	24			.96	.94	.075	.042
2. 모형2(완전매개)	121.98	25	1 대 2	46.20(1)**	.93	.90	.100	.100

주. $N = 382$. ** $p < .01$.

표 3. 총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기본욕구충족	인터넷 중독	-.75**	-.51**	-.24

기본욕구충족 → 스트레스 대처 → 인터넷중독

** $p < .01$

.001, CFI = .96, SRMR = .04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Hair 등(2006)이 제시한 적합도 기준에 부합된다. 기본욕구충족의 접근적 스트레스대처에 대한 경로계수 ($\beta = .54, p < .001$), 접근적 스트레스대처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경로계수($\beta = -.45, p < .001$), 기본욕구충족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경로계수($\beta = -.51, p < .001$)가 모두 유의하였다. 완전 매개모형(모형 2)의 $\chi^2 (25, N = 382) = 121.98, p < .001, CFI = .93, SRMR = .10$ 이었다. 이 결과는 Hair 등(2006)이 제시한 기준과 유사하지만 SRMR 즉, 표집의 공변량행렬

과 추정된 전집의 공변량 값의 차이가 다소 발생한 것으로 보여 적합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완전매개모형은 부분매개모형에 내재되므로 모형비교를 위하여 $\chi^2_{difference}$ 검증을 하였다. $\chi^2_{difference} (1, N = 382) = 46.20, p < .01$ 로 유의하여, 덜 간명한 부분매개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하였다. 그림 2와 3에 부분매개모형(최종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추정치들을 각각 제시하였다.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총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3과 같

다. 인터넷중독에 대한 기본욕구충족의 총효과는 -0.75 로 나타났고, 접근적 스트레스대처를 매개로 하여 -0.24 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본욕구충족은 인터넷중독에 직접적인 효과가 가장 컸고, 스트레스 대처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이 연구는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욕구충족과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인터넷 중독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본욕구충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청소년의 기본욕구충족은 인터넷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수록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김동일, 정여주, 2005; 김은영, 2009; 박영숙, 송현중, 2002; 전춘애, 박철욱, 이은경, 2008; 조영미 외, 2009)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과 같은 기본욕구의 충족은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많은 남자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터넷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내가 원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며, 시간을 투자할수록 레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성취감이나 유능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자기감과 대인관계를 경험해 봄으로써 대인관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욕구가 좌절된 남자청소년은 인터넷사용으로 좌절된 욕구를 충족하려는 유혹이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중독의 위험에 놓여있거나 이미 중독의 수준에 이른 남자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이러한 결핍된

기본욕구들과 인터넷사용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상담과정을 통해 탐색해 가야 한다. 또한 상담에서는 청소년 내담자가 현실에서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개입으로 또래 및 부모, 교사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관계성회복,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유능감 증진, 내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자율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남자청소년의 기본 욕구 충족이 높을수록 접근적 스트레스대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nee와 Zuckerman(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자기결정적 동기, 심리적 욕구충족은 긍정적,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회피적, 소극적 대처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Knee, Patrick, Vietor, Nanayakkara, 그리고 Neighbors(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기본 심리욕구 충족으로 인한 자기결정성은 스트레스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고한다든지, 사건을 수용하는 등의 보다 긍정적인 대처와 관련이 있었다. 즉, 기본욕구가 충족되면 스트레스 사건에 압박을 덜 느끼고 갈등을 위협보다는 도전으로 보며,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외부의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Ryan과 Deci(2002)의 자기결정이론의 기본가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접근적 스트레스 대처를 하는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식 부족을 언급한 권정혜(2000)의 연구결과와 인터넷 중독자는 비중독자에 비해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이우연(2004)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클수록,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욕구가 클수록 인터넷 중독이 강화된다는 선행연구(서승연, 2001; 장동균, 2002; 장미경 외, 2004)와도 맥을 같이 한다. 기본욕구가 충족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스트레스 경험을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

처하게 된다. 남자청소년의 기본욕구충족을 높이는 것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벗어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겪어 내야하는 다양한 부정적 상황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상담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기본욕구충족 결핍으로 인터넷중독을 경험하는 남자청소년들에게 접근적 스트레스대처의 매개 효과가 상담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기본욕구는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충족되며, 청소년시기에 결핍된 욕구를 보완할 적절한 지지체계(부모, 또래, 교사등)와 환경이 갖추어 져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허락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담의 과정을 통해 또 이를 매개하는 요인을 통해 인터넷중독을 해결해야 한다. 먼저 인터넷중독을 경험하는 남자청소년이 상담에 왔을 때 어떠한 결핍욕구를 갖고 있는지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와의 신뢰로운 관계를 통해 관계성을 형성하고, 상담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목표수립을 통해 유능감을 느끼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도록 도와 자율적 선택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의 경험이 남자청소년들의 결핍된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와 부정적 상황들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의지와 스스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것은 인터넷중독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개인상담이나 스트레스 대처 훈련 등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는 것과 잃고 있는 것들을 바로 인식 시키고,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들을 모색하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들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 인터넷중

독 청소년을 상담할 때 인터넷을 줄이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 이러한 인터넷과다사용이 자신의 어떠한 결핍된 욕구를 채우고 있는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한 대처방법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보다 현실에서 적용가능하고 도움이 될 만한 대안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접근적 스트레스대처는 기본욕구충족과 인터넷중독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기본욕구충족과 인터넷중독을 매개하는 다른 변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혼란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청소년들은 현실적 만족이 어려운 결핍욕구들을 인터넷공간에서 대체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보호요인을 발견하여 완충효과를 낼 수 있다면 심리적 욕구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터넷중독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본욕구 충족과 인터넷 중독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의 관련성을 실증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기본욕구 충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직접 효과 뿐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를 통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낸 청소년의 기본욕구 충족과 스트레스 대처, 인터넷 중독의 관계는 청소년 내담자 관점에 근거한 인터넷 중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 현장에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좌절된 욕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당면한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개입 전략 수립함으로써 인터넷 중독 청소년 상담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이에 따른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남자 고등학생의 기본욕구충족, 스트레스 대처, 인터넷중독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였으나 표집이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생으로 국한되었고, 임의표집이어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둘째, 일반 고등학교 남자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학업 및 대인관계에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하고 있는 중증의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중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자기 보고를 통한 측정이므로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따른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그 요인들은 앞서 제시한 요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봄으로써 중독의 핵심 개념에 대한 연구와 이론적 모델에 따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의 기본욕구충족과 인터넷중독과의 관계를 스트레스 대처가 부분매개하였고, 이는 이들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완화시키는 유의미한 매개요인을 찾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권영구(2000). **스트레스 對處 方式과 인터넷 中毒의 相關에 관한 研究**.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정혜(2005).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4(2), 267-280.

김계수(2001). (AMOS)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고려정보산업.

김교현, 전경구(1992).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와 대처척도의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 '93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김남희(2009).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일, 정여주(2005). 청소년 인터넷 중독 모형 분

석. **상담학연구**, 6(4), 1307-1319.

김아영, 오순애(2001).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른 동기 유형의 분류. **교육심리연구**, 15(4), 97-119.

김아영(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16(4), 169-187.

김아영, 이명희, 전해원, 이다솜, 임인혜(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유능감 및 관계성과 비행간의 종단적 관계분석. **교육심리연구**, 21(4), 945-967.

김아영, 이명희(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김연화(200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와 아동의 인터넷 중독 정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복(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영(2006). **대학생의 자유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영(2009) 보호관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성. **청소년복지연구**, 11(4), 1-23.

김은주, 김주환, 홍세희(2006). 자기결정성이 내재동기를 매개로 학업성취도 및 협동학습 선호도와 경쟁학습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4(4), 311-336.

김주환, 이윤미, 김민규, 김은주(2006). 온라인게임 중독의 유형과 원인에 관한 연구 :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0(5), 79-107.

김혜원(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 인터넷 중독의 현황파악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8(2), 91-117.

곽소영, 손은정(2008). 이성관계에서 심리적 욕구충

- 죽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77-195.
- 류진아(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메디컬투데이(2010.10.28). 보도자료 “2009 인터넷중독실태조사” 결과. <http://www.mdtoday.co.kr/mystar/index.html?no=296157>에서 검색.
- 박명희(2008). **위험회피 기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만성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 송현종(2002). 중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실태 및 관련 변인 탐색. **지역사회상담학회지**, 1(1), 23-43.
- 서승연(2001).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몰두 성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준호(2012). **게임몰입과 게임중독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미(2002).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 및 대처유형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옥(2009).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정임, 김동규(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후군 및 음란물 접촉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이계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희(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척도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김아영(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명희(2003). **음란물 중독 경향 청소년의 성태도 및 성지식 수준과 심리사회적 특성**. 안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우연(2004). **인터넷중독, 비중독 집단간의 자존감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차이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경(2005). **청소년의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유형이 우울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정, 유지현(2009). 여대생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8(2), 35-64.
- 이지혜(2012). **현실에서의 기본심리욕구충족정도와 인터넷과다사용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영(2002). **청소년의 인터넷 의존적 사용과 일상적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충동성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규성(2012).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및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훈(2009). 내·외재동기, 자기결정성 동기가 창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9(2), 69-88.
- 장동균(2002). **대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장미경, 이은경, 장재홍 이자영, 김은영, 이문희(2004). 게임장르에 따른 게임중독, 인터넷 사용욕구 및 심리사회 변인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5(3), 55-69.
- 장재홍(2009).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57-183.

- 전영자, 서문영(2005).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3), 13-25.
- 전춘애, 박철욱, 이은경(2008).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상담학연구**, 9(2), 709-726.
- 정여주(2005). **청소년 인터넷 중독 모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란(2003).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측모형**.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미, 김동민, 송경수, 유지현(2009). 청소년 인식에 의한 인터넷 중독의 원인 탐색 : 개념도 접근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1), 469-483.
- 조한익, 이나영(2010).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6), 1-20.
- 최해연(2000). **정서중심적 대처의 재개념화 : 기능적 유사성에 근거한 대처차원의 구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철, 김지현, 김병석(2009). 남성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기본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검증 :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0(2), 1229-1243.
- 한기홍(2008).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규석(1999). **사이버사회에서의 의사소통과 교류행위**. 사이버공간의 심리. 서울 : 박영사.
- 한태영, 이수호(2007). 자기결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진로결정성의 예측.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논문집**.
- 홍세희(2000). **특별기고 :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임상, 19(1), 161-177.
- Alex. S. H. & Jeffery, P. (2001). Internet Addiction : College student case study using best practice in cognitive behavior therapy.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3, 312-327.
- Brenner, V.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V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days of the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ogical Report*, 80, 879-882.
- Deci, E. L., & Ryan, R. M.(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Griffiths M. D. (1999) Internet Addiction. *The Psychologist*, 12(5), 246-250.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 Hepner, P. P., & Hepner, M. J. (2008). The gender role conflict literature: Fruits of sustained commitmen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3), 455-461.
- Knee, C. R., Patrick, H., Vietor, N. A., Nanayakkara, A., & Neighbors, C. (2002). Self-determination as growth motiva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609-619.
- Knee, C. R., & Zuckerman, M. (1998). A nondefensive personality: Autonomy and control as moderators of defensive coping and self-handicapp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2, 115-130.
- Nikos, N., Jemma, E., & Joan L. D. (2009). Understanding the coping process from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2), 249-260.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n E. D. Deci & R. M. Ryan,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3-33). Re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yan, R. M., Lynch, M. F., Vansteenkiste, M., & Deci, E. L. (2010). Motivation and autonomy in counseling,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A look at theory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Online First*, 1-68.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45, 18-29.
- Suler, J. (1996). Cyber and Cyberspace Addiction. [Http://www.rider.edu/suler/psycyber/cybaadict.html](http://www.rider.edu/suler/psycyber/cybaadict.html).
- Young, K. S. & Rogers, R. C.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1), 25-28.
- 원 고 접 수 일 : 2012. 03.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2. 05. 24.
게 재 결 정 일 : 2012. 06. 04.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Management on the Association of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Jung, Min Sun kim, Hyun Mi Kwon, Hyoun Yong

Ajou University Gukje Cyber University Hyup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tress management played a role as a mediate between the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internet addiction. 382 male high school students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Moreover, the study verified mediated effects of the stress management in the relation between the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internet addition b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Findings in the study showed that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a male high school student's basic needs satisfaction was, the lower his internet addiction was. It was also shown that the stress management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the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internet addict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discussed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Basic psychological needs, self-determination theory, stress management, internet addiction